

한국교회 예배 갱신을 위한 말씀과 성찬의 균형:
성경적 주제에 따라 구성된 월별 성찬 목회모델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매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권순원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Soonwon Kwo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BALANCING WORD AND SACRAMENT FOR THE RENEWAL OF WORSHIP IN KOREAN CHURCHES: A PASTORAL MODEL OF MONTHLY COMMUNION STRUCTURED BY BIBLICAL THEMES

Soonwon Kwon

Keyongnam,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e imbalance in Korean church worship, heavily concentrated on the preached sermon (*Verbum Audibile*) while marginalizing the Eucharist (*Verbum Visibile*). To restore the organic integration of Word and Sacrament, this study proposes a '12-Month Eucharistic Worship Model' to help congregations holistically experience Christ's presence and recover dynamic faith.

Liturgically, the Eucharist is not a supplement but a 'visual gospel' sealing the Word's promise. Drawing on Alexander Schmemmann's theology, the Eucharist's eschatological dimension is highlighted as a festive event anticipating God's Kingdom, transcending a mere memorial.

Consequently, four practical design principles were derived: 1) 'Renewal of the Covenant,' 2) 'Panorama of Redemptive History' across a one-year cycle, 3) 'Educational Integration' forming faith identity, and 4) 'Balance between the Visible and Audible Word.'

The proposed model organically combines monthly biblical themes(Obedience, Relationship, Salvation, Victory, Enlightenment, Community, Banquet, Transformation, Sending, Response, Consummation, Self-giving) with liturgical elements. Diversifying scripture, hymns, and the words of institution encourages active congregational response over presider-centered proclamation.

Ultimately, restoring the Eucharist transforms believers into living a 'Eucharistic Life.' This 12-month model serves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Korean churches to recover incarnational spirituality through balanced worship, fulfilling their mission to witness God's Kingdom.

국문초록

한국교회 예배 갱신을 위한 말씀과 성찬의 균형:
성경적 주제에 따라 구성된 월별 성찬 목회모델

권순원

경남, 대한민국

본 연구는 ‘선포되는 말씀(*Verbum Audibile*)’인 설교에 치중되어 ‘보이는 말씀(*Verbum Visibile*)’인 성찬이 소외된 한국 교회 예배의 불균형을 다룬다. 말씀과 성례의 유기적 통합을 회복함으로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현존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고 역동적인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는 ‘12개월 성찬 예배 모델’을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예전적 관점에서 성찬은 설교의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인치고 보증하는 ‘시각적 복음’이다. 특히 알렉산더 슈메만의 신학을 통해 성찬의 종말론적 차원을 조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찬이 단순한 과거의 추모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선취하는 축제적 사건임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 네 가지 실천적 설계 원리를 도출하였다: 1)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언약의 갱신’, 2) 1년 주기의 ‘구속사 파노라마’, 3) 신앙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적 통합’, 4)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의 균형’이 그것이다.

제안된 모델은 월별 성경 주제(순종, 관계, 구원, 승리, 깨달음, 공동체, 잔치, 변화, 파송, 응답, 완성, 자기 중심)를 예전적 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성경 봉독, 찬송, 제정 말씀의 다양화는 집례자 중심의 선포를 넘어 회중의 능동적인 응답을 독려하도록 설계되었다.

궁극적으로 성찬의 회복은 성도의 삶을 ‘성찬적 삶(Eucharistic Life)’으로 변화시킨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12개월 성찬 모델은 한국 교회가 균형 잡힌 예배를 통해 성육신적 영성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실천적 지침이 될 것이다.

목차

감사의 글	ix
I. 서론.....	1
A.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1
C.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성찬의 예배학적 본질: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3
A. 예배 안에서 말씀과 성례의 관계.....	3
B. 성찬의 신학적 의미: '보이는 말씀(Verbum Visibile)'.....	4
C. 성찬의 역사적 중요성: 초대교회.....	5
III. 성찬의 성경신학적 의미: 성경 전체의 메시지.....	7
A.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성취: 유월절 식사에서 주의 만찬으로.....	7
B. 종말론적 식탁: 하나님 나라의 잔치.....	9
IV. 성경 주제에 따른 월별 성찬 예배 설계 원리.....	13
A. 언약의 갱신: 식탁에서의 지속적 만남.....	13
B. 구속사의 파노라마: 성경의 내러티브를 따르는 4 단계 설계.....	15
C. '참여'와 '형성'을 위한 교육적 통합.....	19
D.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의 균형.....	20
V. 1년 12회 성찬 예배 실제 모델(1월~12월).....	23
A. 1월 성찬 예배 모델: “창조와 성찬 : 순종”.....	25
B. 2월 성찬 예배 모델: “언약과 성찬: 관계”.....	28

C. 3월 성찬 예배 모델: “유월절과 성찬: 구원”	30
D. 4월 성찬 예배 모델: “십자가와 성찬: 승리”	33
E. 5월 성찬 예배 모델: “말씀과 성찬: 깨달음과 임재”	35
F. 6월 성찬 예배 모델: “교회와 성찬: 공동체”	38
G. 7월 성찬 예배 모델: “하나님 나라와 성찬: 잔치”	42
H. 8월 성찬 예배 모델: “성령과 성찬: 임재와 변화”	44
I. 9월 성찬 예배 모델: “선교와 성찬: 파송”	47
J. 10월 성찬 예배 모델: “감사와 성찬: 응답”	49
K. 11월 성찬 예배 모델: “종말과 성찬: 완성”	53
L. 12월 성찬 예배 모델: “성찬과 성육신: 자기 중심”	56
VI. 결론	59
A. 요약 및 연구 결과	59
B. 제언 및 한계점	59
참고문헌	61
부록	63

감사의 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대한민국 군인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대 업무와 군인교회 사역이 겹치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무사히 학위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학문의 여정에서 귀한 깨달음을 주신 스승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 신학대학원 시절 '성례전' 수업을 통해 제 안에 성찬에 대한 거룩한 고민의 씨앗을 심어주신 김경진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이 논문의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고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조병호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과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정진욱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5년 동안 예배와 성찬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치열한 고민에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8곳의 군인교회 성도님들과 군중병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동역자로 함께하며 예배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경남 39사단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기도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신향숙 집사) 그리고 장인어른 (김강채 장로)과 장모님 (김민옥 권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박사과정을 고민할 때 주저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변함없는 저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로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 김예슬

사모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바쁜 핑계로 자주
놀아주지도 못하는 아빠를 언제나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자랑스러운 아들
단열이에게도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삶과 사역, 학문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2026. 5.

권순원

I. 서론

A.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한국 교회 예배의 지형은 ‘선포되는 말씀(Verbum Audibile)’인 설교에 압도적으로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개신교 예배의 신학적 토대를 놓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J. Calvin)은 참된 교회의 기준이자 이상적인 예배의 모델로서 말씀과 성례의 불가분성을 강력하게 역설했다. 장인숙의 연구가 지적하듯, “말씀과 더불어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이 성례이다. 칼빈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표지를 말씀과 성례로 보았다.”¹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학을 전개했던 그에게 있어 “성례 또한 말씀과 분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성례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실행되어야 하며 성례보다 앞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례가 의미 있어지는 것”²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학적 원리에 따라 “칼빈은 말씀과 세례와 함께 성찬을 교회의 표지로 세워 교회가 가능한대로 성찬을 자주(1달 1번) 시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했다.”³

이처럼 종교개혁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병행되는 예배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목회 현장에서 성찬은 연례행사나 설교의 부수적

¹ 장인숙,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성찬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5.

² Ibid., 10.

³ Ibid., 70.

절차로 전락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역동성과 성육신적 영성을 체험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하며, 예배의 공동체적 본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보이는 말씀(Verbum Visibile)’으로서 성찬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를 주일 예배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연구는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찬이 단순한 상징이나 추모를 넘어,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확증하는 예배의 핵심 요소임을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론적 고찰에 머물지 않고,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속사적 맥락의 12개월 성찬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말씀과 성찬이 균형을 이루는 온전한 예배 회복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먼저 예배학적·신학적 관점에서 말씀과 성례의 일치성을 고찰한다. 특히 초기 기독교와 종교개혁자들의 성찬 이해를 바탕으로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한다. 이어지는 실천적 장에서는 성서의 절기와 구속사적 주제에 맞춘 월별 성찬 예전을 설계하며, 이를 통해 성도들이 매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다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II. 성찬의 예배학적 본질: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A. 예배 안에서 말씀과 성례의 관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는 설교, 즉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예배는 언제나 설교와 성찬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예식이거나,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말씀과 성찬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다. 말씀과 성찬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강광국은 칼빈의 신학을 빌려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말씀과 성례전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도 동일한 그리스도이시다. 같은 성령께서 각기 다른 수단들을 통해 이 두 행위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과 성례전은 다양성보다는 동일성에 의해서 특징 있는 사건이 된다. 그것은 서로 경쟁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로 의존적이며, 온전한 인간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⁴

이러한 정의는 성찬이 단순히 설교를 돕는 시청각 보조 자료가 아닌, 그 자체로 살아 역사하시는 ‘보이는 말씀’임을 명확히 확증해 준다. 선포되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 즉 성찬을 통해 성도들의 감각 속에 온전히 새겨질 때 예배가

⁴ 강광국, 『말씀과 성찬의 상관관계 연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9), 63.

완성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귀로 만나는 그리스도와, 성찬을 통해 입으로 만나는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시다. 따라서 성찬은 설교가 끝난 후 시간이 남으면 하고, 없으면 생략해도 되는 부수적인 순서가 아니다. 오히려 말씀과 성찬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관계다. 말씀 없는 성찬은 맹목적인 예식이 되기 쉽고, 성찬 없는 말씀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광국은 성찬에 있어서 말씀과 성찬의 관계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한다. 첫째로, 말씀과 성찬은 함께 한다. 둘째로, 성찬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셋째로, 말씀과 성찬은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가시화 되고 온전해진다.⁵

건강한 예배란, 이 두 요소가 성령 안에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성도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찬을 통해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B. 성찬의 신학적 의미: ‘보이는 말씀(verbum visibile)’

성찬을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 정도로만 이해하면,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없다. 성찬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바로 ‘보이는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식이 ‘듣는 것’(설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는 것’(성찬)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증거하는 것을 산출하고 자신이 전달하는 것을 나누어

⁵ Ibid., 100-101.

주기 때문에 그것은 들리는 성례(sacramentum audibile)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에 거꾸로 성례는 보이는 말씀(verbum visibile)이다.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선포에 종속하지 않듯이, 거꾸로 보이지 않는 말씀도 보이는 말씀에 종속하지 않는다. 양자는 말씀으로서 동등한 서열과 비중을 갖는다.⁶

이 설명은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과 ‘보이는 말씀’ 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준다. 설교가 ‘귀로 듣는 성례전’ 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 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떡과 포도주라는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 눈앞에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성찬은 설교의 보조 시청각 교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건이다. 성도들은 성찬상 위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강단에서 선포된 십자가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확신하게 된다.

C. 성찬의 역사적 중요성: 초대교회

성찬의 회복이 시급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임 때마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예배의 심장이었다. 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조기연 교수는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을 분석하며, 성찬이 갖는 공동체적, 영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 때마다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갱신하였다. 그 이유는 성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표현

⁶ Ibid., 74.

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성찬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찬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개인적인 종교 의식을 넘어서 매주 떡을 떼며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했다. 성찬은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시키는 영적 동력이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역동성과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한다. 성찬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역동적인 영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⁷ 조기연, “성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초대교회와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6 (2021), 8.

Ⅲ. 성찬의 성경신학적 의미: 성경 전체의 메시지

A.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성취: 유월절에서 주의 만찬으로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갑자기 단절적으로 발생한 예식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흘러온 구원의 식탁, 특별히 ‘유월절(Passover)’이라는 거대한 뿌리 위에서 탄생했다.

부산장신대 예배학 차명호 교수는 그의 연구에서 현대 교회의 예전적 빈곤을 지적한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서 기원한 초대교회 성찬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예배는 전통에 대한 집착과 정통에 대한 몰이해로 초기 교회의 창조적이고 다문화적인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성찬이 가진 유대적 전통과 초기 교회의 다양한 실험적 적용들은 현대 교회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교회의 자산이며 지침이다. 본 글의 목적은 마지막 만찬과 주의 만찬의 시각에서 성찬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본 글은 우선 성찬의 근본적인 개념인 "나타남"을 출발점으로 삼아,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해한 마지막 만찬의 형식을 예식화하는 과정을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마지막 만찬에서 주의 만찬으로 전환되는 예전적 전통과 교회론적 의미를 기술했다.⁸

차명호 교수는 예수님이 주관하신 만찬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구약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⁸ 차명호, “마지막 만찬에서 교회 성찬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논총』 39 (2014), 83.

이 인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슬퍼만하는 장례식이 아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듯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또 다른 출애굽 사건’ 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 식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Anamnesis)하고 재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구약적 메시지를 잃어버린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추모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필자는 유월절의 시간을 더 넘어 창조의 사건,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강조하고자 한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유월절 식사를 넘어 그 이전 에덴 동산이야기도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창1:26-29).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한 먹을 거리가 있는 식탁으로 허락해 주셨다. 에덴 동산은 먹을 거리가 가득한 은혜의 식탁이자, 성찬 그 자체였다.

또한 하나님은 에덴의 식탁에서 먹는 행위를 중요하게 보셨다. 이에 먹는 행위와 ‘죄’와 연관 시키셨고,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먹는 행위에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에덴에서 먹는 행위는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였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6-17)

후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그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복음을 담고 있다. 즉 예수님이 주신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넘어 에덴 동산 식탁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B. 종말론적 식탁: 하나님 나라의 잔치

성찬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만 고정해서는 안 된다. 성찬은 창조 에덴 동산의 식탁 이야기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며, 2,000년 전 제물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

제물(祭物)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제사상(祭祀床)으로 볼 수 있다. 즉 십자가 그 자체로 하나의 식탁인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성찬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맛보는 예언적 행위이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계 19:9)의 예고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잔치는 천국에서 있을 그리스도와의 잔치의 기다림 속에서 거행된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

리라’ (계3:20)고 말한다.⁹

이처럼 미국 웨슬리신학대학교 예배학 로렌스 홀 스투키(Laurence Hull Stookey) 교수는 성찬을 지상의 ‘그리스도와의 잔치’로 본다. 그리고 그 잔치는 종말론적 식탁인, 천국의 잔치를 향하는 것이다. 이에 성찬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을 묵상하는 추모식이 아닌 것이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한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것이다.

협성대학교 실천신학 나형석 교수는 알렉산더 슈메만(Alexander Schmemmann)의 성찬 신학을 소개하며, 한국 교회가 성찬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속죄와 감상적인 추모의 도구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성찬의 본연의 모습인 ‘종말론적, 교회론적, 우주적’ 차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방 정교회 예배학자였던 알렉산더 슈메만(Alexander Schmemmann, 1923-83)은 정교회 내 예배 회복 운동의 기수였다. 유카리스트 리더지 영성의 개인주의적 함몰을 비판하면서 리더지의 종말론적, 교회론적, 우주적 차원을 회복시키려 했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주의적 영성으로 윤색된 오늘 한국 교회 성찬 예배와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대화해 볼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되어 소개한다.¹⁰

슈메만의 성찬 신학을 연구한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성찬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성찬은 교회가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기쁨은 그의 모든 인간적 계획과 프로그램들, 결정과 행위들을 변모시키며, 그의 모든 선교를, 세상의 생명이신 분계로 세상이 돌아옴을 경축하는 성례로 만들어 준다. 또한 그렇게 그 기쁨 속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세상 속으로 그 기쁨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

⁹ Laurence Hull Stookey,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김순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59.

¹⁰ 나형석, “성찬과 하나님 나라: 알렉산더 슈메만의 성찬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4 (2006), 235.

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소명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레이투르기아'이다.¹¹

위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성찬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통로인 것이다.

슈메만은 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에서 성찬에서의 입당(entrance)을 언급한다. 집례자가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물리적 이동을 넘어, 교회가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 (히2:5)으로 이동해 가는(passage) 움직임이며, 따라서 예전적 '여정'의 핵심적 움직임으로 보았다.¹²

입당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차원의 도약'이다. 예배의 시작과 함께 회중이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찬 예배의 입당 순서는 단순한 입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 이 입당을 통해 교회는 비로소 이 땅의 단순한 '사회적 모임'을 넘어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결국 성찬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 '세상을 위한 생명'이 되는 우주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찬 예배는 더 이상 장례식처럼 어둡고 무거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¹¹ Alexander Schmemmann, *For the Life of the World: Sacraments and Orthodoxy*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73), 26; 신혜철, 「Alexander Schmemmann의 성찬 신학을 통한 한국 교회의 성찬 갱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0), 47에서 재인용.

¹² Alexander Schmemmann,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이종태 역 (서울:복있는사람, 2008), 43.

보여주는 식탁의 원형이다.

IV. 성경 주제에 따른 월별 성찬 예배 설계 원리

성찬이 설교 후에 행해지는 하나의 부차적인 순서로 전락하거나 예배 시간에 맞춰 행해지는 하나의 의식을 넘어 참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언약의 갱신, 구속사적 파노라마(교회력), 교육적 참여, 그리고 말씀과 성찬의 균형이라는 네 가지 핵심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가 제안하는 '12개월 성찬 목회 모델'은 성경의 거대한 내러티브를 1년의 주기 속에 온전히 담아내는 구속사적 설계를 지향한다.

A. 언약의 갱신: 식탁에서의 지속적 만남

월별 성찬 예배를 설계하는 첫 번째 원리는 '언약의 갱신'이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다.

성찬이 지니는 언약 갱신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억' 혹은 '기념'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의 단순한 추억이나 심리적 회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식탁에서 나누었던

'기억(zikkaron)'은 과거에 일어났던 고정된 사건을 머릿속으로 되뇌는 관념적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구원 사건을 현재의 시점으로 소환하여 그 효력 안에 거하게 하는 강력한 예전적 장치였다. 이러한 유대적 배경 속에서 성찬의 '기억'이 어떻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현재화하는지에 대해, 예배학자 에드워드 폴리(E. Foley)는 다음과 같이 탁월한 통찰을 제시한다.

유대인의 공동식은 베라카(berakah)로 가득했다. 이것은 강복, 축복, 송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올려 드리는 송축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나 찬양의 양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성이었다. 베라카 영성은 예수의 공동식사에서 중요했는데, 이는 식사를 함에 있어서 “축사하시거나.” “감사를 드리신” 예수의 모습을 보아 알 수 있다. 예수의 이러한 베라카 영성에서 성찬이 제정되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일을 하라고 말한다. 베라카 영성은 유대인의 공동식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측면으로 이어진다. 기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지카론(zikkaron)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지식의 측면에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기억의 개념은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유월절 식사에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의 탈출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떠올린다. “이 의례는 기억이 과거의 행위나 오래 전에 단번에 맺은 언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식사의 기억과 식사에 수반되는 텍스트는 구원의 경험을 바로 지금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 공동체를 초청한다.” 이러한 유대인의 공동식사에서 기억은 곧 성찬에서의 기억으로 연결된다.¹³

폴리의 이러한 지적은 성찬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맺어진 언약을 먼 과거의 역사적 유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식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우리가 매월 성찬을 거행하는 이유는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추모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구원의 경험을 바로 지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갱신하는 데에 있다.

¹³ Edward Foley,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 :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찬식을 행하여 왔는가?』 최승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61-62; 김선민, 『종교의례적 '공동식사'로서의 기독교 성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실천적 제안: 캐서린 벨(Catherine Bell)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34-35에서 재인용.

B. 구속사의 파노라마: 성경의 내러티브를 따르는 4단계 설계

두 번째 원리는 ‘구속사적 내러티브의 적용’이다. 한국 교회의 성찬이 일회적이거나 과편화된 예식으로 소모되지 않기 위해서는, 1년 12개월의 예전적 흐름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교회력에 따른 성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한 논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긴밀한 연결성을 강조한다.

기독교에 있어 예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향한 구원의 분기점이 되었다. 교회력은 구원사의 모든 과정을 예배를 통해 다시 체험하게 하는 수단이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1년 주기로 하여 교회가 지키는 기념일’로 탄생과 죽음, 부활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력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분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한다.¹⁴

이에 본 연구는 창세기(창조)부터 요한계시록(종말과 완성)에 이르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흐름을 1년 12개월의 성찬 주기에 담아내는 ‘4단계 구속사 설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1단계: 기원과 언약의 식탁 (1월, 2월, 3월)

1분기는 성찬의 성경적 뿌리를 확인하는 시기다. 1월(창조), 2월(언약), 3월(유월절)에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나눈다. 에덴동산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초의 은혜의

¹⁴ 김승진, 『교회력에 따른 성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아담네시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5), 6.

식탁이었음을 고백하며, 성도들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출애굽 유월절의 이야기를 통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명확하게 알게하며 그 구원이 유월절 식탁에 있었음을 깨닫게 한다.

2. 2단계: 십자가와 생명의 식탁 (4월, 5월)

제2단계로 진입하는 봄 시즌(4~5월)의 성찬 모델은 사순절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의 중심이다. 4월의 성찬은 ‘십자가’를 주제로 삼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부활의 승리를 동시에 경험한다.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목상할 때,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식탁’으로 전환된다. 이어지는 5월의 성찬은 ‘말씀’을 주제로 삼아,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깨달음의 식탁을 바라보게 한다. 절망에 빠져 걷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어 먹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처럼, 5월의 성찬은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성찬)’이 함께 나타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명호 교수(부산장신대 예배학)는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초기 교회의 예전적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만찬’이 ‘주의 만찬’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교회론적 의미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통찰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봄 시즌 성찬 모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4~5월의 성찬은 단순히 과거 십자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지막 만찬’의 우

올한 회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베푸시는 생명력 넘치는 ‘주의 만찬’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4월의 예전이 십자가 고난 속에서 역설적인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자리라면, 5월의 성찬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선포되는 말씀과 떼어지는 떡을 통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깨닫는 역동적인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현대 교회는 초대 교회가 누렸던 성찬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3단계: 성령과 교회의 식탁 (6월, 7월, 8월, 9월)

성령강림절 이후 이어지는 여름과 가을은 교회의 시대를 다룬다. 6월(교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됨을 고백하고, 7월(하나님 나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차 완성될 천국 잔치의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8월(성령)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9월(선교)은 세상을 향한 파송을 결단한다.

성찬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연구한 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찬과 공동체(교회)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몸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찬 예전을 통해 이 공동체는 제도적으로 교회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교회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친교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¹⁵

위의 연구처럼 성찬을 통해 형성된 교회 공동체는 결코 우리끼리만의 폐쇄적인

¹⁵ 권예찬,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독교 성찬 교육 연구: '하나님 만남'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68-69.

친밀함에 머무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신혜철의 알렉산더 슈메만(A. Schmemmann)의 성찬 연구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한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그 생명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으로 확장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의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린 교회는 곧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룩한 동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제3단계(6~9월)의 성찬 예배 모델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나아가 어떻게 각자의 일상 속으로 파송되는지를 경험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춘다. 성도들은 이 여름과 가을에 이어지는 성찬의 여정을 통해,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역동적인 교회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4단계: 감사와 완성의 식탁 (10월, 11월, 12월)

한 해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는 구속사의 궁극적인 지점인 ‘완성’을 소망 중에 바라본다. 10월(감사)은 성찬의 본질인 ‘유카리스티아(εὐχαριστία/Eucharistia)’를 회복하여 모든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1월(종말)은 역사의 끝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 축제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12월(성육신)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비움과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한 해를 매듭짓는다.

이러한 4분기의 흐름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의 마무리를 넘어, 예배 공동체가

이 땅의 차원을 넘어 하늘의 영광으로 도약하는 예전적 ‘상승’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알렉산더 슈메만(A. Schmemmann)의 성찬 신학을 연구한 신혜철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의 이동’으로 규정하며, 성찬 여정이 지니는 역동적인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묘사한다.

슈메만은 성찬 여정 전체를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현 세상의 삶을 떠나는, 세상으로부터의 참된 분리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의 승천 움직임, 하늘로 오르는 행위 ‘아나포라’(anaphora)라고 본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인간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나와 ‘장차 올 세상’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¹⁶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장차 올 세상’의 영광에 미리 참여하게 한다. 따라서 마지막 4분기의 성찬은 죄에 대한 슬픔이나 죽음에 대한 엄숙한 추모의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시기의 예전은 하늘 천국 잔치의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영광스러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 성도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성찬의 식탁을 통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고백함과 동시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상승’ 경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신앙의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C. ‘참여’와 ‘형성’을 위한 교육적 통합

¹⁶ Alexander Schmemmann, *The Eucharist: Sacrament of the Kingdom*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8), 42; 신혜철, 「Alexander Schmemmann의 성찬 신학을 통한 한국 교회의 성찬 갱신에 관한 연구」, 50에서 재인용.

세 번째 원리는 ‘교육과 예전의 통합’이다.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된 성찬 예식도 그 의미를 모르면 단순한 관행으로 전락한다.

단순히 성찬이 더 많이 베풀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 회복과 갱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찬의 본질과 풍성한 의미를 체득할 수 있는 성찬 교육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¹⁷

월별 성찬 예배는 반드시 교육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설교를 통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예식문 낭독과 분병·분잔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D.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의 균형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의 균형’이다. 종교개혁 전통을 통해 기독교 예배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말씀과 성찬의 관계를 연구한 강광국의 논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참된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외적인 수단들로써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성례전이라고 할 것이다.¹⁸

이러한 신학적 정의는 설교와 성찬이 예배 안에서 결코 분리되거나 우선순위를

¹⁷ 권예찬,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독교 성찬 교육 연구』, 70.

¹⁸ 강광국, 『말씀과 성찬의 상관관계 연구』, 8.

다투는 경쟁 관계가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이 둘은 성도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고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필수적인 기둥이다.

앞서 살펴 본 강광국의 연구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의 ‘문65. 만약 우리들이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선물을 나누어 갖는다면 이 신앙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한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을 창조하시고, 성례전의 사용을 통하여 이 신앙을 견고케 하십니다.’ 라는 대답에서 알 수가 있듯이 성찬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선포와 성찬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¹⁹

설교와 성찬 이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빚어내는지를 강조한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성찬의 식탁에서 감각적으로 확증될 때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월별 성찬 예배를 설계할 때, 예배의 기획자는 그날의 설교 메시지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찬 식탁에서 영적 절정을 이루도록 예전을 기획해야 한다. 성도의 귀를 통해 ‘들리는 말씀’으로 촉발된 신앙의 깨달음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보이는 말씀(성찬)’을 통해 온몸으로 경험하고 견고해질 때, 성도들은 마침내 머리와 가슴, 그리고 삶이 통합되는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만, 설교와 성찬의 균형을 다루는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히 밝혀야 할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은 1년 12개월의 구속사적 주제에 따른 성찬예배 모델을

¹⁹ Ibid., 5.

제시할 뿐, ‘들리는 말씀’인 설교의 성경 본문 선정 및 설교 본문 작성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설교는 각 교회의 고유한 목회적 상황이 서로 다르고, 각 목회자에게 주시는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강단을 책임지는 목회자가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해석하고 선포해야 하는 고유한 영적 권한이자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12개월 성찬 모델은 목회자가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선포한 그 생명의 말씀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돕고, 성찬 순서의 양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V. 1년 12회 성찬 예배 실제 모델(1월~12월)

성찬은 예배 안에서 설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은혜의 분명한 수단이다. 이에 교회는 성찬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보이는 말씀이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 현실에서는 설교만을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찬을 종속적인 절차로 이해하여 특별한 절기에만 시행하거나 혹은 성찬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도 있다. 이러한 교회 상황 속에서 성찬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차적인 의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성도들이 성찬의 신앙적·성경적·구속사적 의미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성찬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월별 성찬예배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월별 성찬예배 프로그램은 단순히 성찬 시행 횟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성찬을 특정한 한 가지 사건만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제한하기보다 창조와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는 성경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성도들이 성찬을 통하여 복음의 전체적인 의미를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월별 성찬예배 프로그램은 성경의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한 해의 예배 주기 안에 배치하여 성찬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성찬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시작하여 구속과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참여하는 예배 행위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월별 성찬예배 프로그램의 예배 구조는 기본적으로 설교 이후에 성찬이 시행되는 형식을 따른다. 이는 설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성찬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예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즉 설교가 들리는 말씀으로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동일한 복음을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설교와 성찬은 서로 경쟁하거나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두 가지 은혜의 수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각 월별 성찬예식은 동일한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월의 신학적 주제를 반영하여 성찬으로의 초대, 감사기도, 분별과 분잔의 선언문 등을 구성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돕는다. 동시에 성도들은 반복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성경의 구속사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며, 성찬이 교회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제 구체적인 성찬예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월별 성찬예식은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목회 매뉴얼의 성격을 가지며,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의 구체적인 예전 구조를 제시한다. 이러한 모델은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예배 안에서 실제로 구현하려는 시도이며, 성찬을 통하여 교회의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 예배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배 모델에서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찬에 사용하는 재료인 빵과 음료에 대한 부분이다. 어떤 재료로 만든 빵으로 할 것인가? 어떤 모양의 빵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음료로 할 것인가? 개별 잔에 담아 할 것인가? 등 빵과 음료에 대한 연구는 하지 못했음을 미리 알린다. 성경 전체 구속사적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아 낼 수 있는 것이 성찬임을 전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다. 다른 하나는 설교에 대한 부분이다. 주일 선포되는 보이는 말씀과 성찬으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록 효과는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주일 설교 본문 및 주제는 목회자의 목상과 하나님의 응답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설교 이후 성찬식 순서만을 모델로 제시하였다.

A. 1월 성찬 예배 모델: “창조와 성찬: 순종”

본 연구가 제안하는 월별 성찬 예배 모델의 첫 번째 모델은 “창조와 성찬”이다. 이 모델은 성찬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발견하는데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기록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29-30).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그 자체로 ‘먹을 거리’를 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는 것, 즉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성찬이며 식탁이었다. 또한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먹을 거리를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의 생명은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찬(식탁)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건을 기록한다. 여기서 ‘먹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및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신앙적 행위, 즉 순종으로 나타난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며, 결국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에덴의 식탁은 은혜와 순종으로 볼 수 있다.

신약성경은 에덴에서 깨어진 생명의 식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며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성찬은 단순히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의식에 그치지 않고,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창조와 성찬: 순종’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1:29)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생명의 식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식탁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피조물인 우리의 참된 생명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그 생명의
 식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깨어진 생명의 식탁을 회복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 회중 : 불순종으로 생명의 식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이 자리에 나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2절을 함께 부르시며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6)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식탁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이 식탁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빵과 음료를 통해 순종을
 결단하며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분잔 선언

- 집례자: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내어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내어주신 피입니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3-4절을 함께 부르시며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B. 2월 성찬 예배 모델: “언약과 성찬: 관계”

본 연구가 제안하는 두 번째 모델은 “언약과 성찬”이다. 이 모델은 성찬의 의미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첫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기초로 관계를 유지하셨다.

특히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다. 또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소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 24:8)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세우셨다. 그 중심에는 항상 ‘피’가 있었다(할례 역시 피 흘림이 있음). 이러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마 26:28)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눅 22:20)

따라서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2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언약과 성찬: 관계’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롬 5:8-10)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식탁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회중: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식탁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22-24)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식탁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식탁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주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빵과 음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분잔 선언

- 집례자: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C. 3월 성찬 예배 모델: “유월절과 성찬: 구원”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세 번째 모델은 “유월절과 성찬”이다. 이 모델은 성찬의 의미를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절기를 이해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이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 유월절 사건을 나타내셨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그 피를 본 ‘멸하는 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다(출 12:13).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건이다.

출애굽 이후의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사건이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 12:14)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 존 더햄(J. Durham)은 WBC성경 주석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레지카론(기념하여)은 여기서 연중 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현재 시제의 사건으로, 즉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다.’²⁰

존 더햄이 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화하는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재화한 것이다.

유월절의 의미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다. 예수님은 유월절

²⁰ John I. Durham, 『WBC성경주석 : 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283.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성찬은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의 사건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 구원의 사건을 현재화하며 참여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건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예배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3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유월절과 성찬: 구속’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 12:13-14)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참된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유월절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이 식탁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회중: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어린양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품고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겠습니다.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눅 22:19-20)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식탁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분잔 선언

- 집례자: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3-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D. 4월 성찬 예배 모델: “십자가와 성찬: 승리”

본 연구가 제안하는 네 번째 모델은 “십자가와 성찬”이다. 이 모델은 성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속에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월 유월절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성찬은 과거 2,000년전 십자가 사건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구원의 사건이며,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다. 어린양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으며,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만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부활까지 이야기를 담으며 십자가의 사건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드러내며, 성찬은 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예식이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 사건임을 이야기한다. 십자가가 죄 사함을 이루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여는 사건이다. 따라서 성찬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동시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이며, 성도들은 성찬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4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십자가와 성찬: 승리’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식탁

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식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 회중 :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식탁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 날’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6-28)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의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식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분잔 선언

- 집례자: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내어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 날’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E. 5월 성찬 예배 모델: “말씀과 성찬: 깨달음과 임재”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다섯 번째 모델은 “말씀과 성찬”이다. 이 모델은 성찬을 설교와 분리된 의식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결합된 은혜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말씀과 성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 십자가 부활사건 이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처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그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25-27, 32).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눅 24:30-31)

이 사건은 말씀의 깨달음과 성찬의 예식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말씀선포와 성찬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성찬이 단순한 기념 의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으니 말이다.

말씀을 통해 준비된 마음이 성찬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말씀과 성찬은 동일한 은혜의 사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성찬은 설교 이후에 행하는 부차적인 예식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예식이다, 성찬 역시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5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말씀과 성찬: 깨달음과 임재’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눅24:30-31)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풀어 주시고 떡을 떼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성찬 가운데서 더욱 분명히 경험하는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회중 :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닫힌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빵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11:23-26)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의 마음에 은혜로 남게하시고,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 저희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 / 분잔 선언

- 집례자 :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을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F. 6월 성찬 예배 모델: “교회와 성찬: 공동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여섯 번째 모델은 “교회와 성찬”이다. 이 모델은 성찬을 개인의 경건이나 내면적 신앙 행위로 축소하지 않고, 교회를 형성하고 드러내는

공동체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약성경은 성찬을 개인의 종교적 의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공동체적 행위로 바라본다. 또한 성찬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 행위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는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다.

협성대학교 예배와 설교 나형석 교수는 한 연구에서 초대 교회 안에서 성찬이 공동체 형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오스카 쿨만에 따르면 초기 교회 모임의 지고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다. 저들은 성찬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몸으로 자신의 신분과 모습을 확인한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적 몸으로서의 교회의 현현이 일어나는 곳이다.²¹

위의 주장을 통해 볼 때 성찬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는 거룩한 사건이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며, 그 중심에는 성찬 즉, ‘떡을 떼는 일’ 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위의 말씀에 대해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은 아래와 같이 주해한다.

본 절의 번역에 있어서 한글 개역 성경은 마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해 힘쓰게 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볼 때 인과 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음’, ‘교제함’, ‘떡을 떼고’, ‘기도함’ 이 모두 명사형으로 기록되며 ‘그리고’란 뜻을 갖는 등위 접속사 ‘카이(καί)’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모두 ‘서로…전혀 힘쓰다’란 하나의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즉 본절에서 나타나는 초대

²¹ 나형석, "의미있는 설교-성찬 예배를 위한 실천적 제안," 『신학과 실천』 26 (2011), 66.

교회의 특징은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²²

위의 주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 교제, 성찬, 기도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찬이 공동체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즉 성찬은 부수적인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중심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성찬은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바울은 성찬을 설명하며, 성찬이 교회의 일치성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분명히 한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전 10:17).

이 말씀은 성찬이 단순한 개인적 신앙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성도들은 각기 다른 존재들이지만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성찬은 공동체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일치를 경험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찬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성도들은 성찬을 통하여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성찬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 상호 간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사건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실제로 드러내는 자리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6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교회와 성찬 : 공동체’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²²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도행전제1-7장』 (서울: 제자원, 2006), 245-246.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전 10:17)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부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식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식탁에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이 떡과 음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회중 :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6)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희가 한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빵과 음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 / 분잔 선언

- 집례자 :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G. 7월 성찬 예배 모델: “하나님 나라와 성찬: 잔치”

본 연구가 제안하는 일곱 번째 모델은 “하나님 나라와 성찬”이다. 이 모델은 성찬을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현재적 참여에 의미를 두는데 목적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종종 ‘잔치’의 이미지로 묘사한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며, 그곳에서 구원이 나타날 것을 예고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사 25:6, 9).

신약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다. 또한 성찬을 제정하시며 이 식탁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셨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2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눅 22:18)

위의 말씀처럼 성찬은 이와 같이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현재 가운데 미리 경험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볼 때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동시에,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예배 행위이다.

따라서 성찬은 단순한 추모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잔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7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성찬과 하나님 나라: 잔치’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22: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막 14:25)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식탁이며, 슬픔과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그 식탁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식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식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회중 :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막 14:22-25)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식탁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별 / 분잔 선언

- 집례자 : (분별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까.

- 분별/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H. 8월 성찬 예배 모델: “성령과 성찬: 임재와 변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여덟 번째 모델은 “성령과 성찬”이다. 이 모델은 성찬을 단순한 기념적 행위나 상징적 의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독교 예배에서 성령은 단순한 보조적 요소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현재적으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 주체이다. 즉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생성하며, 성찬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을 더욱 확증하고 강화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을 창조하시고, 성례전의 사용을 통하여 이 신앙을 견고케 하신다.²³

이 인용이 보여주듯이 성찬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의식이 아니라,

²³ 이형기,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88-89; 강광국, 『말씀과 성찬의 상관관계 연구』, 5에서 재인용.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포된 복음이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입증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성찬은 성령의 임재 없이 이해될 수 없는 예배 행위이다.

또한 성찬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성령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며, 공동체를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끄신다.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안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성찬을 단순한 의식으로 축소시켜 온 한국교회의 예배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성찬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예배의 핵심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령과 성찬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성찬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행위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8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성령과 성찬 : 임재와 변화’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7-39)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성찬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는 이 식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 안에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 회중 :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183장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6)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식탁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 / 분잔 선언

- 집례자 :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183장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3-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I. 9월 성찬 예배 모델: “선교와 성찬: 파송”

본 연구가 제안하는 아홉 번째 모델은 “선교와 성찬”이다. 이 모델은 성찬을 단순히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행위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상으로 파송되는 선교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몸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은 이해는 성찬이 단순한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넘어,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성찬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는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찬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깊이 연결된 예배 행위이며,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찬은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할 뿐 아니라, 그 정체성을 삶 속에서 드러내도록 요청하는 사건이다. 성찬에 참여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²⁴ 권예찬,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독교 성찬 교육 연구』, 68-69.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9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선교와 성찬: 파송” 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복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식탁은 세상을 향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동시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사명을 함께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식탁에 나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붙잡읍시다.

- 회중 :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양식을 먹고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6)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저희들이 이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식탁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식탁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 / 분잔 선언

- 집례자 :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주신 피입니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J. 10월 성찬 예배 모델: “감사와 성찬: 응답”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열 번째 모델은 “감사와 성찬”이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공동체가 감사로 화답하는 본질적인 예배 행위이다.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감사’였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3-24)

여기서 ‘축사하다’ (유카리스티아)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찬이 감사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찬은 은혜를 받는 자리일 뿐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또한 바울은 성도의 삶 전체가 감사로 드러져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예배적 행위이다.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응답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배학적 관점에서 성찬의 이러한 본질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J. White)는 초대교회가 견지했던 성찬의 핵심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찬에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대해 초대교회가 경험한 내용의 첫 번째 이미지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전'이었다. 헬라어의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가 이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략...) 감사드림은 최후의 만찬 자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등장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설명에는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등장한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범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다. 특히 찬양, 감사, 탄원의 기도를 드렸던 유대교의 패턴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감사하는 마음 쪽에 강조를 두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위해 기도 드리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²⁵

²⁵ James White,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 성례전』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118.

화이트의 통찰처럼, 성찬에서의 감사는 단순히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적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행하신 구체적인 구원 사건들을 ‘기억’ 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전적인 응답이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10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감사와 성찬: 응답’ 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19-20)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떡과 잔을 나눠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찬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로 응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합니다.

- 회중 : 십자가의 보혈로 베푸신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저 받은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의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눅 22:19-20)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이 식탁 앞에 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감사가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고백으로 매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 / 분잔 선언

- 집례자 :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 집례자 :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K. 11월 성찬 예배 모델: “종말과 성찬: 완성”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열한 번째 모델은 “성찬과 종말”이다. 성찬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이 선언은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역사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행위임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밤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눅 22:18)고 말씀하셨으므로, 성찬의 식탁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닿아 있음을 예고하셨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 영광스러운 날을 대망하는 종말론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성찬의 종말론적 성격은 유대교의 유월절 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고 확장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식사를 메시아가 오실 때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메시아 향연의 대망으로 보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건을 변형하여 과거와 미래 위에 세우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에(눅 22:16),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마 26:29; 막14:25)에, 그 나라에서 다시 유월절 식사를 함께 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었다(고전11:26). 이와 같이 주님의 만찬은 시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앞서고 뒤에서서 이르게 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성찬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나 장래에 허락하실 것을 미리 선취해 맛보는 것이다.²⁶

²⁶ Ibid., 131-132.

따라서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예배이다. 성도들은 이 식탁에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어린양 혼인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성찬의 식탁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동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1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종말과 성찬 : 완성’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 19:9)

성도 여러분, 오늘 참여할 이 식탁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며 동시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식탁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회중 :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소망하며 이 식탁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26:26-29)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이 시간 이 식탁과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 / 분잔 선언

- 집례자 :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받으십시오.

- 집례자 :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받으십시오.

. 성찬 참여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L. 12월 성찬 예배 모델: “성찬과 성육신: 자기 중심”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열두 번째 모델은 “성찬과 성육신”이다.

12월의 성찬 예배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임하신 ‘성육신’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종말을 향해 달려온 1년의 구속사적 여정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완성됨을 고백하는 자리이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피조물에게 온전히 선물하신 사건이며, 성찬은 바로 그 ‘자기 주심’의 은혜를 오늘 여기의 식탁에서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사건이다. 제임스 화이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성례전이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견고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은 역사속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기 주심의 행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 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 숨겨졌던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플랑드르의 도미니칸 신학자인 에드워드 쉴레벡(Edward Schillebeeckx)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초의 성례전"(primordial sacrament)이라고 지칭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인간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체화되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유일한 성례전(the sacrament)이시며, 가장 최초의 성례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의 만남(encounter)은 하나님과 만나는 성례전이 된다.²⁷

화이트와 쉴레벡의 주장처럼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성례전이다. 이에 성찬을 통해 성육신하신 신비를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는 것이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주신

²⁷ Ibid., 44-45.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사건이다.

이러한 성육신의 은혜는 성찬을 통하여 계속해서 경험되어야 한다. 성도들은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성찬은 성육신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며, 설교를 통해 선포된 성육신의 복음이 공동체 가운데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예배 행위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2월 성찬 예배의 주제를 ‘성찬과 성육신 : 자기 주심’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배 모델은 설교 이후에 시행되는 성찬 예배의 실제 진행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설교 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 집례자 : 성도 여러분, 2,000년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단순한 구원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회중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생명의 식탁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겠습니다.

. 성찬 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1-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성찬 제정 말씀

- 집례자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6)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 기도

- 집례자 : (식탁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2,000년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식탁과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며 함께 하심을 더욱 더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분병 / 분잔 선언

- 집례자 :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 (분잔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 성찬 후 찬송

- 집례자 :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3-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를 때 성찬보를 덮음)

IV. 결론

A. 요약 및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설교 중심적 예배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찬의 본질 회복과 실천적 모델링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성찬은 설교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보이는 말씀’이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적 사건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이 제안한 12개월 성찬 모델은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 등 교회력과 구속사적 주제를 성찬 예문과 결합하여, 성도들이 매달 새로운 신학적 지평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찬의 시행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공동체적 일치감을 고양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B.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가 제안한 모델이 목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집례자의 신학적 확신뿐만 아니라, 성찬에 대한 성도들의 교육적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의 재료, 분병과 분잔의 방식 등 예전의 세부적인 심미성과 상징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본 논문에서 모든 신학적 난제와 교파적 차이를 다루지는 못했으나, 성찬의 빈도를 높이고 그 의미를 심화시키려는 시도는

‘초대 교회 예배의 원형’을 회복하려는 모든 목회자에게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맺음말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성찬은 그 응답이 절정에 이르는 지점이다. 본 논문을 통해 제안된 성찬 모델이 한국 교회 강단에 말씀과 성례의 거룩한 균형을 회복시키고, 성도들이 매 주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성찬’으로 살아가는 동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번역서적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도행전제1-7장』. 서울: 제자원, 2006.

Durham, John I. 『WBC성경주석 : 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Schmemmann, Alexander.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이종태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8.

Stookey, Laurence Hull.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김순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White, James.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 성례전』.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6.

학위논문

강광국. 『말씀과 성찬의 상관관계 연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9.

권예찬.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독교 성찬 교육 연구: '하나님 만남'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김선민. 『종교의례적 '공동식사'로서의 기독교 성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실천적 제안: 캐서린 벨(Catherine Bell)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김승진. 『교회력에 따른 성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아남네시스를 중심으로』.

- 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5.
- 신혜철. 『Alexander Schmemmann의 성찬 신학을 통한 한국 교회의 성찬 갱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0.
- 장인숙.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성찬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학술지

- 나형석. “성찬과 하나님 나라: 알렉산더 슈메만의 성찬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4 (2006), 235-250.
- . “의미있는 설교-성찬 예배를 위한 실천적 제안.” 『신학과 실천』 26 (2011), 63-90.
- 조기연. “성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초대교회와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6 (2021), 7-39.
- 차명호. “마지막 만찬에서 교회 성찬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논총』 39 (2014), 83-109.

부록

<성금요일 성찬예배 예식서>

1. 성금요일 예배의 의미

성금요일(Good Friday)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금요일 예배는 기독교에서 자주 경험하지는 못한다. 보통 고난주간에 특별새벽기도가 대표적이다. 필자는 신학생시절 학교에서 성금요일 채플(성찬)을 경험하면서 이 예배를 통한 부활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군부대 안에서 타종교인, 천주교의 성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미사를 통해 부활절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안에서도 성금요일 예배를 통한 부활의 의미를 심화 할 필요성을 느꼈다.

2.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통한 기대 효과

성금요일 성찬 예배는 다음과 같이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성찬 예배 효과 극대화이다. 성찬의 사용하는 빵과 음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행하는 성찬은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한다. 또한 주일 예배의 성찬 빈도가 낮은 것은 시간의 문제가 있기도 하다. 금요일 저녁에 행하는 성찬예배는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한 주일 예배와 달리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하며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부활절을 향한 신앙적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진행되는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성도 입장에선 많지 않다. 물론 교회에서 특별새벽기도로 의미를 심화하려고 하지만 새벽기도를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금요일 저녁 성찬예배는 십자가를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고, 새벽기도보다 참여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적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 부록에 담은 성금요일 성찬예배 예식서는 필자가 담임 중인 군인교회에서 실행한 예배 순서를 담았다. 그리고 이 예배 예식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예식서』에 있는 성금요일 예배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것임을 밝힌다.

성금요일 성찬예배

'26.4.3.(금) 저녁 7시

인트로 영상

Good Friday

다같이

예배기도/십계명 교독

다같이

참회의 기도

다같이

가상철언

첫 번째 말씀 눅 23:32 - 34

두 번째 말씀 눅 23:39 - 43

세 번째 말씀 요 19:25 - 27

네 번째 말씀 막 15:33 - 34

다섯 번째 말씀 요 19:28

여섯 번째 말씀 요 19:29-30

일곱 번째 말씀 눅 23:44-49

권순원 목사

영상

십자가

다같이

성찬으로의 초대

성찬위원

(안수집사)

다같이

묵상 기도

다같이

*결단의 찬송/축도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권순원 목사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교회

. 인트로 영상 : 성금요일_Good Friday

(<https://vimeo.com/120781902?f1=pl&fe=sh>)

. 예배 기도

- 인도자 :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피흘리신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었던 저희가 구원 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생각과 악한 영들을 성령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십계명 교독

- 인도자 : 가능하신 분은 다같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자 부분을 읽고, 여러분은 회중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p>- 인도자 :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p> <p>- 회 중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p> <p>- 인도자 :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p> <p>- 회 중 :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p> <p>- 인도자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p> <p>- 회 중 : 네 부모를 공경하라</p> <p>- 인도자 : 살인하지 말라</p> <p>- 회 중 : 간음하지 말라</p> <p>- 인도자 : 도둑질하지 말라</p> <p>- 회 중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p> <p>- 인도자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p> <p>- 다같이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p>

. 참회의 기도

- 인도자 : 참회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 자신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모든 죄를 내려놓으니, 긍휼로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인도자 :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반주 : 20초 정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8)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 가상칠언

- 인도자 : 예수님께서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곱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이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온몸의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쥐어짜며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완성하신 '새 언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통해 의미를 나누고,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의 후렴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 첫 번째 말씀(눅 23:32-34)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 인도자 :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두 손에는 이제 굵은 쇠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박힌 그 두 손과 찢기신 몸은, 지금 자기를 찢르는 자들의 가장 깊은 죄악까지도 씻어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성찬의 식탁에 나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아버지께 용

서를 구하신 저 공훈의 기도,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이 내 모든 죄악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나를 살리신 그 조건 없는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인도자 :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후렴만 부른다. '아멘'은 7번째에서만
 한다)

후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 하 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 두 번째 말씀(눅 23:39-43)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
 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
 고 /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 예수께
 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 인도자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들은 당시 부자들의 돈으로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소위 강도였습니
 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로마 군인들에 의해 붙잡혀 죽게 되는 절망
 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
 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
 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그는 낙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 성찬의 식탁이 바로 그 낙원의 그림자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 믿음
 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 인도자 :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후렴만 부른다. '아멘' 은 7번째에서만 한다)

. 세 번째 말씀(요 19:25-27)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 인도자 :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새로운 아들로 소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혈연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가족'을 탄생시키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모여,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모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눔 받은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의 미움과 질투 그리고 장벽이 무너지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 인도자 :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후렴만 부른다. '아멘' 은 7번째에서만 한다)

. 네 번째 말씀(막 15:33-34)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인도자 :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죄로 인한 단절/저주/버려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목요일, 예수님께서 로마군인들에게 붙잡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피하고 싶으셨던 그 무서운 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과 저주'가 마침내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의 절규에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잔을 온전히 마셔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고

난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인도자 :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후렴만 부른다. '아멘'은 7번째에서만 한다)

. 다섯 번째 말씀(요 19: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 "내가 목마르다."

- 인도자 :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 69:21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철저한 육신의 고통이자, 지옥의 형벌이 주는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끔찍한 목마름을 겪으셨기에, 그분은 고난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의 우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보혈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는 참된 생수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영혼을 억누르던 모든 갈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 인도자 :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후렴만 부른다. '아멘'은 7번째에서만 한다)

. 여섯 번째 말씀(요 19:29-30)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 "다 이루었다."

- 인도자 : 테텔레스타이(헬라이어 음역) 십자가 사역의 완성과 승리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헬라이어 의미로 보면, 이 선포는 "모든 빛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첫 유월절 이후 150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며 짐승의 피를 흘려왔던 율법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이루신'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완전한 구원의 선언을 붙잡고, 죄책감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 인도자 :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후렴만 부른다. '아멘'은 7번째에서만 한다)

. 일곱 번째 말씀(눅 23:44-49)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 하며 /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 인도자 :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생을 마감하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길고 고통스러웠던 순종의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았던 흑암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평안의 기도입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분안에 있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남은 삶과 죽음의 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기를 결단합니다.

- 인도자 :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후렴만 부른다. '아멘' 으로 마지막 마무리한다)

- 분병/분잔 위원 :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성찬보를 걷어 개어 놓음.

. 영 상 :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https://youtu.be/GRsGwq-S6HQ?si=JFG8SRinV3pw3mAz>)

- 인도자 :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시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겠습니다.

. 성찬으로의 초대

- 인도자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미움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내 뜻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제정사 :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19-20).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할 때 빵을 들어 올려 보이고 빵을

찢는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 때 미리 음료를 담아 준비한 주전자와 빈 잔을 들고 빈 잔에 보이도록 따른다.)

.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

- 인도자 :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이 거룩한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 그리고 이 식탁 가운데 보내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쏟으신 보혈이 저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분병/분잔 선언

- 집례자: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몸입니다.’

- 집례자: (분병 위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 묵상기도

- 인도자 :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며 여러분 자신과 가정, 사명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 분병/분잔 위원 : (묵상기도 중) 성찬보 덮기

. 결단의 찬송

- 인도자 :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 축도

- 인도자 :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마음에 깊이 역사하시며 고난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oonwon Kwon

Place and Date of Birth: Andong, South Korea, April 25, 1986

Parent's Names: Hyangsuk Shin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Kyungan High School 182, Jebiwon-ro,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5, 2005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12, 2009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9, 201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oonwon Kwon

Name typed

March 18, 2026